

## 기독교상담자의 성찰경험: 내담자의 조기종결을 중심으로

김 미 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자의 전문발달과정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자기성찰에 초점을 두고 자기성찰이 촉진되는 조기종결 상황에 대해 기독교 상담자의 반응과 대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최근 6개월 내에 내담자의 조기 종결 상황을 경험한 기독교숙련 상담자 10명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이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Creswell(2005)의 기본절차를 따랐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조기종결에 대한 반응과 대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초보상담자는 조기종결을 곧바로 실패한 상담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정서적인 반응들은 상담경력이 쌓이면서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요인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내담자의 삶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인지적 반응과 대처가 활발해지면서 자신과 상담과정에 대해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조기종결 경험을 통해 기독교상담자의 성찰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주어진 과제를 순조롭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행 중 성찰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 과정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많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셋째, 조기종결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가이다. 조기종결을 예방하려면 상담의 기본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된다. 충분한 구조화와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작업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중심단어** : 자기 성찰, 상담자 전문성 발달, 질적분석, 실행 중 성찰, 조기종결

• 논문 투고일: 2010년 04월 02일

•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3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13일

\*한영신학대학교

## I. 여는 글

상담자들은 전문발달과정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sup>1)</sup> 그동안 상담자의 전문발달과정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핵심기제는 자기성찰이다.<sup>2)</sup> 상담자의 성찰은 복합적인 이해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치료적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습을 쌓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sup>3)</sup> 많은 연구들에서 치료자와 상담자의 전문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전문적인 실습을 쌓는 방법으로서 성찰을 계속 기술해왔다<sup>4)</sup>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의 성찰적인 질문이 촉진되는 상황중의 하나가 내담자에 의한 조기종결이다. 대개 상담 장면은 복잡하고 모호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역동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내담자에 의한 조기종결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기종결은 상담 성과 측면에서도 상담 목표에 이르기 전에 상담이 중단된 것이므로 상담자로서는 실패한 상담으로 지각하게 된다. 상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종결방식이며, 특히 초보상담자는 조기 종결한 상담을 실패로 지각하게 된다.

이처럼 상담에서 조기종결 경험은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기종결은 상담현장에서 빈번하지만

- 
- 1) P. P. Heppner & H. J. Roehlke, "Differences Among Supervisees at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Implications for a Developmental Model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no. 1 (1984): 76-78.
  - 2) M. H., R?nnestad & T. M. Skovholt, "Supervision of Beginning and Advanced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1993): 396-405; S. B. Shapiro & J. Reiff, "A Framework for Reflective Inquiry on Practice: Beyond Intuition and Experience," *Psychological Reports* 73 (1993): 1379.
  - 3) B. A. Griffith & G. Frieden, "Facilitating Reflective Thinking in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 no. 2 (2000): 82-86.
  - 4) 다음의 연구들은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 A. Neufeldt, J. N. Iversen & C. L. Juntunen, *Supervision Strategies for the First Practicum*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5); W. T. Copeland, C., De La Cruz, E. Birmingham & B. Lewin, "The Reflective Practitioner in Teaching: Toward a Research Agenda,"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9 (1993): 347-359.

조기종결비율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정확한 추정을 하기가 어렵다. Pekarik(1993)는 상담자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정신건강 센터를 방문한 내담자의 절반이 조기종결 혹은 상담을 중단했으며,<sup>5)</sup> Reis와 Brown(1999)은 심리치료를 받는 내담자의 30-60%가 조기종결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조기종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관심을 두고 상담자변인, 내담자 변인, 관계변인, 그리고 기관변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도 일치된 것이 없다. 조기종결과 관련된 내담자 변인으로는 우울증, 공황장애 및 범불안 장애를 치료한 연구들을 집계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의 14-26%가 조기종결을 했으며<sup>7)</sup> 대학상담실과 개인상담실의 조기종결 비율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조기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변인으로 꾸준히 증명되는 것은 내담자의 약물남용이다. 이들은 약물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내담자에 비해 훨씬 조기종결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상담시간도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내담자에 비해 치료를 받는 기간도 짧았다.<sup>8)</sup> 내담자 입장에서 뜻밖의 종결은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조기종결이 실패한 치료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조기종결한 내담자들을 3개월 후 추수지도 한 결과, 대략 절반가량이 증상이 완화되어 있었다.<sup>9)</sup>

5) G. Pekarik, "Beyond Effectiveness: Uses of Consumer-oriented Criteria in Defining Treatment Success," *Handbook of Effective Psycho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1993). 409-436에서 재인용.

6) B. F. Reis & L. G. Brown, "Reducing Psychotherapy Dropout: Maximizing Perspective Convergence in the Psychotherapy Dyad," *Psychotherapy* 36 (1999): 123-136에서 재인용.

7) D. Westen & K. Morrison, "A Multi-dimensional Meta-analysis of Treatment for Depression, Panic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Empirically Supported Therap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no. 6 (2001): 875-878.

8) L. Ford, L. R. Snowden & E. J. Walser, "Outpatient Mental Health and the Dual-diagnosis Patient: Utilization of Service and Community Adjustmen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4 (1991): 291-298.

9) G. Pekarik, "Follow up Adjustment of Outpatient Dropou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1983): 501-511.

조기종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3회기를 마친 후 조기종결을 한 경우 추수지도를 한 결과,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회기 혹은 2회기에서 조기종결을 한 경우는 적응상의 문제가 그대로 있었고 악화되는 정도가 심했으며 증상이 호전되는 비율도 저조했다. 이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실망하거나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로써 상담은 한 회기에 끝나게 되는데, 단회 상담(the first may be the last)은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기종결의 상담자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Rodolfa, Rapaport와 Lee(1983)의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10)</sup> 이들은 조기종결과 관련된 상담자의 경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전문적인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내담자가 다시 상담에 돌아오게 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기종결로 인해 상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담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좌절, 무능력, 분노, 실패감을 경험하기도 한다.<sup>11)</sup>

조기종결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작업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ryon 등은(1993) 합의종결한 상담자는 그들의 작업동맹에 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조기종결한 상담자는 작업동맹을 낮게 평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12)</sup>

조기종결의 기관변인으로는 접수면접 후 1회기가 시작되기 까지 상담자가 정해지는 동안 대기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기기간과 조기종결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sup>13)</sup>

10) E. R. Rodolfa, R. Rapaport & V. E. Lee, "Variable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in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1983): 402-404.

11) D. H. Frayn, "Assessment Factors Associated with Premature Psychotherapy Termin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6 (1992): 250-253.

12) S. G. Tryon & A. S. Kene, "Relationship of Working Alliance to Mutual and Unilateral Ter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93): 33-36.

13) F. Baekeland & L. Lundwall, "Dropping out of Treatment: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2 (1975): 738-742; R. D. Freund, T. T. Russel & S. Schweitze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에서 핵심기체인 성찰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찰이 촉진되는 조기종결에 대한 기독교상담자의 반응이 발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숙련상담자의 자전적 회상방법을 통해 초보상담자였을 때 빈번한 조기종결에 대한 반응과 성찰을 회상하도록 요구한 후, 지금 현재는 조기종결에 대해 어떻게 성찰하고 대처해 나가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써 기독교상담자의 성찰의 발달과 변화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기독교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조기종결에 대한 반응과 대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둘째, 조기종결 경험을 통해 기독교상담자의 성찰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셋째, 조기종결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가이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성찰

상담자의 자기성찰은 문제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조기종결 상황은 상담자의 조력역지와는 상관없이 상담의 방향이나 결과가 주어짐으로써 상담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상담자가 자신의 조기종결 경험과 방향에 대해 숙고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찰은 상담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상담자의 지각, 행동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와서 장기간의 성장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대개 초급상담자는 조기종결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지만 발달과정에서 조기종결을 통해 한층 더 많이 깨닫게 되

---

"Influence of Length of Delay between Intake Session and Initial Counseling Session on Client Perception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991): 3-8.

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때 상담자 자신에게 던지는 성찰적인 질문은 인지와 행동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해 줌으로써 자기 치유(self-healing)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담자의 성찰은 복합적인 이해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치료적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습을 쌓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sup>14)</sup> 성찰에 대한 논의는 John Dewey(1933)의 과학적 사고에 대한 반성적 접근(reflective approach)에서 시작되었다. 듀이는 충분한 지식과 비판적 지적 활동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실천의 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듀이의 주장은 Schön에 의해서 한층 더 발전되었다. Schön(1983, 1987)은 실행 중 성찰(reflection-in-action)을 중시하면서 사고하고 행위하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둔다.<sup>15)</sup> 그는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성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론과 실제의 연결이라는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은 교육의 장에서 성찰에 대한 현대적인 논의의 기초를 형성해주고 있다.<sup>16)</sup>

최근에는 교육의 장뿐만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전문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전문적인 실습을 쌓는 방법으로서 성찰을 계속 기술해왔다.<sup>17)</sup> 따

14) Griffith & Frieden, "Facilitating Reflective Thinking in Counselor Education," 82-85.

15) Schön이 강조하는 성찰의 개념은 다음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s Books, 1983);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Toward a New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Profession* (New York: Basics Books, 1987).

16) De La Cruz Copeland, Birmingham & Lewin, "The Reflective Practitioner in Teaching: Toward a Research Agenda," 347.

17) 전문상담자의 성찰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L. T. Hoshmand, *Orientation to Inquiry in a Reflective Professional Psychol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a); L. T. Hoshmand, "Supervision of Predoctoral Graduat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 (1994b): 147-161.; L. T. Hoshmand & D. E. Polkinghorne, "Redefining the Science-practice Relationship and Professional Training," *American Psychologist* 47 (1992): 264-270; S. A. Neufeldt & L. E. Forsyth, *Supervisors and Reflective Teacher: A Training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라서 조기종결 상황에서 성찰의 실천(practice)은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고 있으며,<sup>18)</sup> 자기성찰은 전문가로 발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sup>19)</sup>

상담 장면은 복잡하고 모호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역동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상담은 표준화된 상담 원리나 보편화된 상담기법·전략을 단순히 시행에 옮기고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자는 순간순간 그 내담자의 특수성과 상황적 요인들을 사려 깊게 고려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주제적·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내담자의 복잡한 문제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곧 상담자의 유능성과 직결이 되므로, 성찰적인 사고의 발달은 상담자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성찰적인 상담자(practitioners)를 교육하는 것은 상담자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찰적인 사고는 상담 장면에서 복잡하고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적절한 이론이나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King과 Kitchener(1994)는 성찰판단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성찰의 사고발달모델이다.<sup>20)</sup> 상담에 적용해보면 이 모델은 상담자로 하여금 임상적인 판단을 위한 기초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

(Berkeley, CA, 1993); S. A. Neufeldt, J. N. Iversen & C. L. Juntunen, *Supervision Strategies for the First Practicum*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5); S. B. Shapiro & J. Reiff, "A Framework for Reflective Inquiry on Practice: Beyond Intuition and Experience," *Psychological Report* 73 (1993): 1379-1394; S. A. Neufeldt, M. P. Karno & M. L. Nelson,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no. 1(1996): 3-9.

18) M. L. Nelson & S. A. Neufeldt, "The Pedagogy of Counseling: A Critical Examin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1998): 70-72.

19) J. J. Merriënboer, O. Jelsma & F. G. Paas, "Training for Reflective Expertise: A Four-component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Complex Cognitive Skill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0 (1992): 23.

20) P. M. King & K. S. Kitchener, *Developing Reflective Judgment: Understanding and Promoting Growth and Critical Thinking in Adolescents and Adult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4)에서 재인용.

데 도움을 준다. 전-성찰사고(pre-reflective thinking), 준-성찰사고(quasi-reflective thinking), 그리고 성찰사고(reflective thinking)로 3수준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하위단계인 전-성찰사고는 지식은 권위적인 인물이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옳으며 확실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준-성찰 단계에 있는 사람은 구조화하기가 난해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지식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호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지식은 전형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한다. 가장 상위단계인 성찰사고는 지식이란 다양한 원천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구체적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되어진다는 입장이다. 비록 어떤 문제들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라도 어떤 판단들이 다른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Skovholt와 Rønnestad(1995)는 상담자 전생애 발달관점을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성찰이 상담자(practitioner)의 발달을 위한 가장 주요한 도구로 확인되었다.<sup>21)</sup> 성찰은 상담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sup>22)</sup> 특히 상담자의 지각, 행동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와서 장기간의 성장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자신에게 던지는 성찰적인 질문 역시 인지와 행동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해 줌으로써 자기치유(self-healing)의 효과가 있다.<sup>23)</sup>

한편 상담자 발달에서 성찰을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상담자의 대화분석이 활용되기도 한다.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대화패턴을 분석하여 상담자 발달을 촉진시키기는 방법을 취한다. 상담자 발달 과정을 돕고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원은 그들의 내담자이기에 상담자들은 내담자와

21) T. M. Skovholt & M. H. Rønnestad,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5) 에서 재인용.

22) Neufeldt, Karno & Nelson,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 of Supervisee Reflectivity," 3.

23) K. Tomm, "Interventive Interviewing: Part II. Reflective Questioning as a Means to Enable Sself-healing," *Family Process* 26, no. 2 (1987): 107-109.



의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을 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켜간다.

교육학의 틀을 상담자 발달의 새로운 모델에 적용한 성찰학습이론(reflective learning theory)이 있다. 성찰학습은 수퍼비전 또한 신뢰성을 토대로 한 성찰적 수퍼비전을 강조하면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긍정적인 학습 동맹(positive learning alliance) 관계 속에서 수퍼바이지의 자기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성찰적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상호작용하는 성찰 학습 순환(interactive reflective learning cycle)을 통하여 상담자 발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담자가 자신의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해 숙고하는 성찰은 전문성 함양의 핵심기제가 된다.

## 2) 조기종결

상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담자에 의한 조기종결이다. 이는 상담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선행연구들에 의해 검토되어 왔다.<sup>24)</sup> 보통 상담종결의 형태는 합의종결(mutual termination)과 조기종결(premature termination; unilateral termination: client dropout)로 분류된다.<sup>25)</sup> 합의종결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치료 회기 내에서 종결 시기에 대하여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기종결은 상담자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며 사전에 의논 없이 내담자의 요청과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24) 조기종결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손유미 · 정남운,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3호 (2005): 523-545; 안이환 · 심혜숙, “대학생 개인상담에서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3호 (2002): 511- 527; M. Long, “*Therapeutic Alliance in the Identification of Premature Termination from Psychotherapy*”(Ph.D. diss., Adelphi University, 2004); B. Piergrossi, “*Variables Related to Therapist Trainee's Attribution at Client Premature Termination*”(Ph.D. di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4).

25) L. P. Berrigan & S. L. Garfield, “Relationship of Missed Psychotherapy Appointments to Premature Termination and Social Clas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no. 4 (1981): 239.

리나 상담의 종결형태의 구분은 간단하지 않으며 그 입장과 정의도 다양하다.

먼저 회기수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입장<sup>26)</sup>을 살펴보면, 계획된 회기수를 다 채우지 못한 내담자, 1회기 면접 후 나타나지 않는 내담자, 2회기 면접 때 상담실을 오기로 약속은 했으나 여기는 내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으로는 회기 수에 관계없이 상담자의 판단으로 치료목표에 도달하기 전 즉 종결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오지 않거나, 주도적으로 요청해서 종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에 내담자에 의해 서둘러 상담이 중단되는 것을 조기종결로 보기도 한다.<sup>27)</sup> 여기서 조기종결을 어떤 입장으로 정의하는가에 상관없이 공통점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사소통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의 실패는 결국 상담의 실패로 연결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담자는 심리적 허탈감, 전문성에 대한 의심, 진로에 대한 회의 등으로 고심하게 되고, 내담자는 상담기회의 상실, 문제의 부인, 이후 상담동기의 약화 등으로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조기종결은 양자 모두에게 뜻밖의 상황이므로 예기치 못한 어떤 결과에 대해 상담자의 성찰은 일어난다. 회기 내에서 성찰(reflection-in-action) 뿐만 아니라 회기 이후에도 성찰(reflection-on-action)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 26) 회기수를 기준으로 조기종결을 정의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D. L. Epperson, "Counselor Gender and Early Premature Termination from Counsel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1981): 349-356; N. C. Beck, J. Lambert, M. Gamache, E. A. Lake, C. L. Fraps, W. T. McReynolds, N. Reaven, G. H. Heisler & J. Dunn, "Situational Factors and Behavioral Self-prediction in the Identification of Clients at High Risk to Drop out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 (1987): 511-520; C. Saltzman, "Variable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in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A Comment on Rodolfa, Rapaport, & Le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984): 402-404.
- 27) 회기수와 상관없이 내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담이 중단되는 것을 조기종결로 보는 입장도 있다. G. Pekarik, "Follow up Adjustment of Outpatient Dropou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1983): 501-511; B. W. McNeil, R. J. May & V. E. Lee, "Perceptions of Counselor Source Characteristics by Premature and Successful Termin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987): 86-89.

한편, 연구자들은 심리치료 분야에서 종결과 귀인의 역할도 탐색해왔다.<sup>28)</sup>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상담자는 조기종결의 원인을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찰을 하게 된다. 특히 초심자들은 조기종결에 대해 상담자 귀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이론은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데 적용되어 왔고 나아가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되어왔다.<sup>29)</sup>

## 2.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상담자의 전문발달과정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자기성찰에 초점을 두고 자기성찰이 촉진되는 조기종결 상황에 대해 기독교상담자의 반응과 대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기종결에 대해 숙고하는 성찰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6개월 내에 내담자의 조기 종결 상황을 경험한 기독교 숙련상담자 10명을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기독교 숙련상담자는 10학기 이상의 교육과 상담 경력, 6학기 이상의 슈퍼비전을 경험한 참여자들이다. Creswell(2005)은 질적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될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자신들의 의식적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실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했다.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가 원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고 검증하는 논리과정을 촉진시키기에 용이하도록 고안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8) J. D. Kloss & S. A. Lisan, "Clinician Attributions and Disease Model Perspectives of Mentally Ill, Chemically Addicted Patien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ubstance Use & Misuse* 38, no. 14 (2003): 2097-2107; K. R. Olson, T. T. Jackson & J. Nelson, "Attributional Bias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Psychological Practice* 3, no. 2 (1997): 27-33.

29) J. Hinds, "Clients' Attributions about Psychotherapy: What Work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 no. 5-B (1991): 2775.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학력	상담경력	수퍼비전경험	신앙생활기간
1	43	석사 졸	5년	6학기	10년
2	47	박사과정	6년	9학기	12년
3	51	박사과정	8년	10학기	모태신앙
4	37	박사과정	7년	8학기	모태신앙
5	48	박사과정	12년	12학기	15년
6	52	박사과정	10년	12학기	모태신앙
7	40	박사과정	5년	8학기	20년이상
8	51	박사과정	12년	10학기	20년이상
9	47	박사졸업	8년	10학기	모태신앙
10	49	박사졸업	9년	12학기	모태신앙

## 2)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했으며, 이를 전사하여 원자료를 만들었다. 분석의 첫 단계로는 코딩을 했다. 코딩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를 중심으로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여 자료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이다.<sup>30)</sup>

연구 참여자의 자전적 회상방법에 의존하여 종결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단연구로 면접 시기를 초보와 숙련일 때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자전적 회상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채택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조기종결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처음에는’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참여자들이 연구문제에 맞게 잘 응해주었다. 그러므로 종단연구

30) F. Lebar,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1970)에서 재인용.

의 결과와 많이 일치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수집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하였으며, 면접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조기종결에 대한 반응과 대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둘째, 조기종결 경험을 통해 기독교상담자의 성찰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셋째, 조기종결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가이다.

### 3) 자료분석절차

자료분석은 Creswell(2005)의 기본절차를 따랐다. 분석의 첫 단계는 자료처리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한 자료들을 전사하여 원자료를 구성하였다. 2단계는 코딩단계이다. 코딩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3단계는 범주화 단계로 공통적인 내용과 독특한 개념의 내용을 범주화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역으로 표기하였다. 4단계는 해석 과정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와 '어떻게' 경험이 되었는지를 구조적 기술로 발전시켰다. 5단계는 '보고와 시각화' 과정으로서 내용과 영역을 표로 제시하였다.

## 3.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조기종결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변화,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종결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은 3가지 측면으로 범주화되었다.

### 1) 정서적 영역

정서적 영역의 범주는 다시 두 가지의 하위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하

위범주는 과거에도 조기종결에 대해 정서적으로 우선적인 반응을 하고 현재에도 정서적인 반응을 한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1) 정서적 반응(과거) ⇒ 정서적 반응(현재)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예기치 않은 종결에 대해 자신을 믿고 내담자를 맡겨 준 상담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다소 지니고 있었지만, 차츰 이런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내담자를 도와 줄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중단되어 못내 아쉬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와 했지만 현재는 상담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내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① 상담실에 대한 미안함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남

상담실에서 나를 믿고 연결을 해줬는데도 내가 이 사람을 잘못해서 내담자가 어떤 나를 금방 내 실력을 다 간파하고 상담을 오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기서 조금 자유해진 것 같고. 이제는 내담자와 한두 번 만나다 보면 내담자의 특성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아~ 내담자가 이 정도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그 때가 되서 내담자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 오지 않겠다고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 가정이 되니까 덜 이제... 좀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걸 내 문제로 보지 않게 되고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항으로 저항의 싸인으로 제가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어떤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지요. (참여자 3)

남이 알까봐 좀 부끄러운 거. 나에게 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담자가 그만 온다는 그 말을 상담실에 자신 있게 말 못하고 그게 나에게 누가 지적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웬지. (참여자 5)

② 안타까운 대상의 전환 : 상담자 자신



중단한 내담자가 안타까움

처음에는 상담자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또 상담 효과가 뭔지 그 맛을 보려면 아직 다 못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나는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의 안타까움은 이 사람이 안타깝거든요. 그 때는 내가 안타까웠는데. (참여자 5)

(2) 정서적 반응(과거) ⇒ 인지적 반응(현재)

정서적 영역의 두 번째 하위범주는 과거에는 조기종결에 대해 정서적인 반응을 먼저 하였으나 현재는 조기종결에 이르게 된 인지적 해석과 노력이 주요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예기치 않은 종결에 대해 우선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기력감 등의 정서적 반응이 우세하였음을 회고했다. 즉 참여자는 과거 자신의 상담을 회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보고했다. 그러나 자신과 상담과정을 성찰하는 전문발달을 통해 점차로 내담자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게 되는 인지적 반응으로 대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① 무시당함



내담자의 심리를 이해

그때는 막 화냈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제가 나의 이 뜻도 모르고 안 오다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 반응하듯이 약속하고 안 오고 핑크 내면 화내듯이 그런 식이었지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담자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지요. (참여자 6)

②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내담자의 삶의 패턴으로 해석

내가 저 사람에게 적합한 상담자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신

뢰를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아... 나를 볼 때 이 사람에게 내 문제를 맡겨도 되겠다는 어떤 그게 아닐 때에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다음에는 그냥 자기 내담자 문제 때문에 자기 삶의 패턴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참여자 4)

③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회의감



내담자의 동기저하 알아차림

음... 좀 불쾌하기도 하구요 황당하기도 하고 상담자가 딱 몇 회기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도 뭐 중간에 갑자기 종결을 하고, 또 중간에 종결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싸인이 있어요 몇 번 미뤘다가 오고 몇 번 약속을 거듭 거듭 변경을 하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기 종결을 좀 감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불쾌하고 아... 상담자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담자가 먼저 알아 차린 게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도 생기고 내가 과연 상담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생기구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3)

내담자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죠.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이 상담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한 건 아닌가? 해서 좀 힘든 내담자겠다. 감지가 되지요. (참여자 9)

④ 자신에 대한 실망



내담자의 복잡한 상황 추측 및 확인

한마디로 말해서 아! 참... 나한테 많이 실망하죠... 스스로도. 기분이 나빴죠. 그래도 요즘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쉽지는 않지 하면서 (참여자 2)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랬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상담자로서 그



사람들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인데 그걸 못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나름대로 다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랬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이 어떤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참여자 4)

네. 초기에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나...상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상담을 원하지 않는가...이런 식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면,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참여자 7).

⑤ 무능력감



내담자 요인 탐색

그럴 때 그런 느낌. 아...내가 정말 능력이 없나보다. 나한테 그 사람이 실망,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내가 무능력 하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걸 지나 내담자의 뭐랄까...만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의 특성도 좋고 아니면 그 사람의 기질적인 것도 좋고...성격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늦거나 안오는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의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무조건 그 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나 자신에게만 문제를 돌렸다면 이제는 내담자에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보고. (참여자 8)

나의 비전문성을 좀 봤기 때문에 날 상담자의 그 능력을 현실적으로 잘 본 내담자구나. (참여자 9)

⑥ 정서적 반응 우세



인지적 평가 반응

속상하고... 두 가지죠.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나... 또 하

나는 아! 상담자를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지 멋대로구나 그런 인간적인 것도 있고... 내가 상담...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내담자가 그거를 알고 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 갑자기 오기 싫었을까, 아니면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까, 그런 거... 어... 지난번에 와서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까...(참여자 3)

돈이 아까운가, 상담자를 잘못 만나서 지난번에 내가 상담 잘못했나? 그래서 날 싫어하나?...이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음...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그게 만약에 내가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이 그 정도 가지 않아도 내적인 힘을 얻어서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서 빨리 종결을 하면 그거는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럴 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참여자 8)

화가 나죠. 뭐 화가 나지. 아니 말이야 급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참여자 9)

열 받지요. 화나지요. 나는 그 화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담자한테.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상담을 할 수 없다. (참여자 10)

## 2) 인지적 영역

참여자는 과거에 내담자가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부정적인 내적반응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해 종결 형태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회상하였다. 예기치 못한 종결이었으므로 후속 조치도 미흡하였고 다소 소극적이었다.

내담자의 조기종결 원인에 대해 참여자는 과거에 자신의 탓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자로서 유능감과 자질의 역부족, 자신의 상담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내담자가 종결한 것으로 지각했었다. 현재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상담의 작업동맹이 잘 이루어져 중단된 상담이 다시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풍부한 상담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① 조기종결을 예측 못함



종결 형태를 감지함

이것이 애가 병적이다 할 때는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해야 된다 할때는 일부러 10분 남겨두고 다음 상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분만 하고 보내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상담이 제대로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참여자 1)

② 후속 조치가 미흡 소극적



후속 조치가 적극적

평장히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로 전화를 해 본다거나 이런 것을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죠. (중략) 지금은 종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니 한 번 더 오는 게 어떨겠냐 하면서 제안을 해요. (참여자 1)

말도 없이 안 올 때가 많은데 그런 경우 조기 종결을 매듭짓기 위해 한번 상담실에 오라고 하지요. 종결상담을 해서 끊어주지요. 종결상담을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것, 상담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지요. 이런 것이 바람직 한데 때로는 안될 수도 있지요. (참여자 6)

③ 상담자가 작업동맹을 낮게 평가함



상담자가 작업동맹을 높게 평가함

상담을 하는 동안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담하는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얻은 게 있었을 경우에는 얼마 후에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내담자가 쉬었다가요?) 그렇죠. 좀 더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많은 퍼센트가 자기가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고. (참여자 1)

④ 내담자의 외적 반응만 지각함



내담자의 내적 역동을 지각함

자기(내담자)맘에 안들기 때문에 나(상담자)를 마음대로 할려고 했다가 언더서 다른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그럼으로써 조기종결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참여자 1)

⑤ 회기준수 어려움에 대한 이해부족



회기준수 어려움을 이해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서 여기 온다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엄청난 일인데 그 자체에 시간을 바꾸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 안에 그런 굉장히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게 어떤 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참여자 4)

처음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그건 그 사람들 문제다 생각하고 원래는 상담에 오는 분들이 워낙 감정의 기복이 있고 상담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나도 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웬만한 노력과 결심이 아니고는 끝까지 상담자가 의도하는데 까지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했으면 참 열심히 한 거지 이 정도 한 걸로 나름대로 도움이 됐겠지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지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10)

⑥ 상담자 귀인



내담자(상황)귀인

초기에는 내가 거부 당했구나 내가 상담을 못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못 하면 이럴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데서 많이 자유로와

진 것 같아요. (참여자 6)

아마도 나한테서 더 켈 것이 없었나보다 ..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 내가 아직 자질이 모자라나 보다, (참여자 8)

음.. 뭐가 잘못됐나.... '처음 드는 생각이 마음에 안 들었나' 이 생각부터 들더라구요. '도움이 안됐나' 뭐 이런 거. (참여자 10).

⑦ 구조화를 소홀히 함



구조화 작업을 충분히 함

이제 구조화 하는데 신경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나의 역할이 뭔지, 진행방법도 상담 회의록을 적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첫 세션에서 제가 항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본격적인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뷰,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죠. 상담을 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직도 안됐나 그러면 다음 세션에서 그 작업을 해요. (참여자 7)

상담할 때 특히 초반에 항상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혹시 상담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지 하기 싫다는지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참여자 6)

처음에는 그렇게 명료하게 딱 얘기를 못 해줘서 해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죠 처음에는, 그래서 몇 번 이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상담이 하기 싫어지더라구요 내담자들. 그러면 안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걸 같아요. (참여자 10)

⑧ 실패한 상담으로 지각



도움이 된 상담으로 재평가

그게 초창기에는요 내 상담의 실패와 연결될 때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요. 처음에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고 내가 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때는 좌절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패라고 생각을 하니깐. 하지만 지금은 내담자가 그냥 안 와버린다거나 뭐..그럴 때는 상담의 효과 자체를 실패라고 규정짓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하고 한 걸음을 갔건 열 걸음을 갔건 그 간 동안에는 도움을 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편해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하게 되고...(참여자 2)

### 3) 태도적 영역

참여자는 과거에 상담동기가 낮은 내담자에 대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 조기종결된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상담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현장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동기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참여자는 상담의 한계를 수용하게 되고 상담의 중단은 자신의 탓이기 보다는 내담자의 준비도가 미흡함을 파악함으로써 조기종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①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함



#### 내담자 선택 및 동기강화

이 사람이 이거를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앞서서 아닌데요, 더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절대 안하고. 이 사람이 그 말(종결) 하기까지 굉장히 고민 했겠다. 그렇게 받아주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고서 다음에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선택하게 하거든요. (참여자 5).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동기나 자율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나한테 미룰 수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요즘은 자기를 많이 이해시켜 주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이 자기를 알아가는 게 즐겁고 좋은지 조기 종결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② 상담의 한계를 넘어선 조력



상담의 한계를 수용

상담을 좀 많이 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내담자 다 겪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상담이 꼭 내가 어떻게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또 내담자도 치유가 되려면 본인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으면 상담 진행이 안되잖아요. (참여자 6)

③ 자신의 실수로 돌림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자세가 부족함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내담자 역동을 이해하게 되고 오지 않을 것도 예상도 되고. 내담자 측에서 상담을 계속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보죠. 그러니까 이게 내담자의 문제인지 상담자의 문제인지. (참여자 6)

④ 조기종결 사례를 드러내지 않음



조기종결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함

그 상담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뻑뻑함을 느꼈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해 놓았다가 물어보죠. 이제 선배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리이러한 종결을 했는데 종결부분이 걸린다 (참여자 10)

지금까지 조기종결에 따른 기독교상담자 반응의 변화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기종결에 따른 기독교상담자 반응의 변화

영역	초심자(과거) 내용	영역	숙련자(현재) 내용
정서	상담실에 대한 미안함	정서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남
	안타까운 대상의 전환 : 상담자 자신		중단한 내담자가 안타까움
	무시당함	인지	내담자의 심리를 이해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내담자의 삶의 패턴으로 해석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회의감		내담자의 동기저하 알아차림
	자신에 대한 실망		내담자의 복잡한 상황 추측 및 확인
	무능력감		내담자 요인 탐색
정서적 반응 우세	인지적 평가 반응		
인지	조기종결을 예측 못함	인지	종결형태를 감지함
	후속 조치가 미흡·소극적		후속 조치가 적극적
	상담자가 작업동맹을 낮게 평가함		상담자가 작업 동맹을 높게 평가함
	내담자의 외적 반응만 지각함		내담자의 내적 역동을 지각함
	회기준수 어려움에 대한 이해 부족		회기 준수 어려움을 이해
	상담자 귀인		내담자(상황) 귀인
	구조화를 소홀히 함		구조화 작업을 충분히 함
태도	실패한 상담으로 지각	태도	도움이 된 상담으로 재평가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함		내담자의 선택 및 동기 강화
	상담의 한계를 넘어선 조력		상담의 한계를 수용
	자신의 실수로 돌림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자세가 부족함
	조기종결 사례를 드러내지 않음		조기종결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함

### III. 닫는 글

그동안 상담자의 전문발달과정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자기성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측정의 어려움으로<sup>31)</sup> 경험적인 연구들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이 촉진되는 내담자에 의한

31) P. J. Morrisette, *Self-supervision*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2002)에서 재인용.



조기종결 상황에 대해 기독교상담자의 반응과 대처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자의 성찰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상담자로서 이들에게 과거의 조기종결에 대한 반응을 회상시켜 현재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의 자전적 회상방법에 의존하여 먼저 초심자일 때 조기종결 경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했는가를 회상하도록 했으며, 현재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지를 살핌으로써 상담자의 자기성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은 Creswell(2005)의 기본절차를 따랐으며, 본 연구의 주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조기종결에 대한 반응과 대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초보상담자는 조기종결을 곧바로 실패한 상담으로 지각하였다. 초보상담자는 내담자의 조기종결에 대하여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지적인 대처와 후속조치에 있어서 반응이 느리고 소극적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초심자였을 때 내담자가 상담을 중단한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무능력감을 느껴 내담자에게 자신은 역부족이라고 회상하였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내적인 태도와 반응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결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어 상담자 발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다. 참여자는 실패한 상담으로 인식하여 종결에 대해 후속 조치가 소극적이었으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게 기울였다. 이는 상담자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정서 유발에 소모됨으로써 인지적인 대처와 노력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참여자는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 상담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내담자의 복잡한 상황을 추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부정적인 무능력감, 무시당함, 회의감 등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상담 경력이 쌓이면서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요인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내담자의 삶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인지적 반응과 대처가 활발해지면서 자신과 상담과정에 대해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조기종결 경험을 통해 기독교상담자의 성찰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가. 참여자는 과거에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례일 경우 불안해하였으므로 이를 내담자가 알아차림으로써 성급한 마무리(premature closure)를 하게 된 것 같다고 회상하였다. 내담자가 회기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불참하는 것은 조기종결을 암시하는 지표인데도 이들은 회기 내에서 내담자의 역동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상담자 자신의 불안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범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는 Sch?n(1983, 1987)의 성찰의 이론으로 설명하면, 초보상담자일수록 상담경험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의 내적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해 실행 중 성찰(reflection-in-action)이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내담자가 조기종결을 한 후에 ‘왜 내담자가 갑자기 이럴까?’라는 자신의 상담 과정과 결과에 대해 차후에 숙고하기 시작하는 실행 후 성찰(reflection-on-action)을 비로소 하게 된다.

성찰은 기독교상담자가 자신의 실무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숙고를 통해 상담 현장에 유용한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을 획득하는 과정이다.<sup>32)</sup>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과거에는 뜻밖의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지 못해 상황의 추이를 주시하는 실행 중 성찰 능력이 떨어져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와 새로운 시도의 대처 반응이 미약했다. 이는 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주어진 과제를 순조롭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행 중 성찰을 수행한다는 김진숙(2005)의 논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sup>33)</sup>

셋째, 조기종결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가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기본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합의종결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즉 조기종결을 예방하려면 상담의 기본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충분한 구조화 작업과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작업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의한 일방적인 종결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

32) 김미경, “기독교상담자 전문발달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신학대학신학회, 「신학논단」 제54집(2008): 40-41.

33) 김진숙, “상담자 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4호 (2005): 819-821.

어야 하며 아울러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에서 조기종결의 사례도 충분히 다루어져 상호간에 합의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적인 경험도가 높을수록 내담자가 다시 상담에 응하게 되었다는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Rodolfa(1983)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sup>34)</sup> 더우기 상담 회기 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일수록 내담자가 돌아오는 비율이 높음으로써 합의종결로 상담이 마무리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상담 장면에서 자주 봉착하는 조기종결을 통해 상담자의 발달과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기종결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상담자들이 치료회기를 시작할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상담목표에 도달한 후 종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유의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면접 시에 많은 정보들이 누락되어 정확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3명의 초보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그들의 조기종결 경험에 대해 체험의 의미를 확인해 보았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조기종결 직후에 면접을 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상담자는 초심자에서 대가로 발전하게 된다.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조력활동에서 부딪치는 조기종결과 같은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전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자들의 전문성 향상은 조기종결과 같은 빈번한 실제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찰능력의 함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34) Rodolfa, Rapaport & Lee, "Variable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in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402-404.

【 참고문헌 】

- 김미경. “기독교상담자 전문발달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신학대학신학회. 「신학논단」 54 (2008): 11-56.
- 김진숙. “상담자 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권 4호 (2005): 813-832.
- 손유미 · 정남운.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3호 (2005): 523-545.
- 안이환 · 심혜숙. “대학생 개인상담에서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3호 (2002): 511-527.
- Baekeland, F. & Lundwall, L. “Dropping out of Treatment: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2 (1975): 738-783.
- Beck, N. C., Lamberti, J., Gamache, M., Lake, E. A., Fraps, C. L., McReynolds, W. T., Reaven, N., Heisler, G. H., & Dunn, J. “Situational Factors and Behavioral Self-prediction in the Identification of Clients at High Risk to Drop out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 (1987): 511-520.
- Berrigan, L. P. & Garfield, S. L. “Relationship of Missed Psychotherapy Appointments to Premature Termination and Social Clas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no. 4 (1981): 239-242.
- Copeland, W. T., Birmingham, C., De La Cruz, E., & Lewin, B. “The Reflective Practitioner in Teaching: Toward a Research Agenda.”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9 (1993): 347-359.
- Creswell, John.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의 역.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05.
- Epperson, D. L. “Counselor Gender and Early Premature Termination from Counsel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1981): 349-356.
- Ford, L., Snowden, L. R., & Walser, E. J. “Outpatient Mental Health and the

- Dual-Diagnosis Patient: Utilization of Service and Community Adjustmen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4 (1991): 291-298.
- Frayn, D. H. "Assessment Factors Associated with Premature Psychotherapy Termin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6 (1992): 250-261.
- Freund, R. D., Russel, T. T., & Schweitzer, S. "Influence of Length of Delay Between Intake Session and Initial Counseling Session on Client Perception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991): 3-8.
- Griffith, B. A., & Frieden, G. "Facilitating Reflective Thinking in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 no. 2 (2000): 82-93.
- Heppner, P. P., & Roehlke, H. J. "Differences Among Supervisees at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Implications for a Developmental Model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no. 1 (1984): 76-90.
- Hinds, J. "Clients' Attributions about Psychotherapy: What Work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 no. 5-B (1991): 2775.
- Hoshmand, L. T. *Orientation to Inquiry in a Reflective Professional psychol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a.
- Hoshmand, L. T. "Supervision of Predoctoral Graduat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 (1994b): 147-161.
- Hoshmand, L. T., & Polkinghorne, D. E. "Redefining the Science-practice Relationship and professional training." *American Psychologist* 47 (1992): 264-270.
- King, P. M., & Kitchener, K. S. *Developing Reflective Judgment: Understanding and Promoting Growth and Critical Thinking in Adolescents and Adult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4.
- Kloss, J. D. & Lisman, S. A. "Clinician Attributions and Disease Model Perspectives of Mentally III, Chemically Addicted Patien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ubstance Use & Misuse* 38, no. 14 (2003): 2097-2107.
- Lebar, F.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1970.

- Long, M. *Therapeutic Alliance in the Identification of Premature Termination from Psychotherapy*. Ph.D. diss., Adelphi University, 2004.
- McNeil, B. W., May, R. J., & Lee, V. E. "Perceptions of Counselor Source Characteristics by Premature and Successful Termin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987): 86-89.
- Merrienboer, J. J. G., Jelsma, O., & Paas, F. G. W. C. "Training for Reflective Expertise: A Four-component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Complex Cognitive Skill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0 (1992): 23-43.
- Morrisette, P. J. *Self-supervision*.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2002.
- Nelson, M. L., & Neufeldt, S. A. "The Pedagogy of Counseling: A Critical Examin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1998): 70-88.
- Neufeldt S. A., & Forsyth, L. E. *Supervisors and Reflective Teacher: A Training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Berkeley, CA, 1993.
- Neufeldt, S. A., Iversen, J. N., & Juntunen, C. L. *Supervision Strategies for the First Practicum*.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5.
- Neufeldt, S. A., Karno, M. P., & Nelson, M. L.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no. 1 (1996): 3-9.
- Olson, K. R., Jackson, T. T., & Nelson, J. "Attributional Bias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Psychological Practice* 3, no. 2 (1997): 27-33.
- Parry, K. W. "Grounded Theory and Social Process: A New Direction for Leadership Research." *Leadership Quarterly* 9, no. 1 (1998): 85-106.
- Pekarik, G. "Follow up Adjustment of Outpatient Dropou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1983): 501-511.
- Pekarik, G. "Improvement in Client who have given Different Reason for Dropping out of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1983): 909-913.
- Pekarik, G. "Beyond Effectiveness: Uses of Consumer-oriented Criteria in Defining Treatment Success." *Handbook of Effective Psychotherapy*. New York,

- NY.: Plenum Press, 1993, 409-436.
- Piergrossi, B. *Variables Related to Therapist Trainee's Attribution at Client Premature Termination*. Ph.D. di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4.
- Rodolfa, E. R., Rapaport, R. & Lee, V. E. "Variable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in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1983): 402-404.
- Reis, B. F. & Brown, L. G. "Reducing Psychotherapy Dropout: Maximizing Perspective Convergence in the Psychotherapy Dyad." *Psychotherapy* 36 (1999): 123-136.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Supervision of Beginning and Advanced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1993): 396-405.
- Saltzman, C. "Variable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in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A Comment on Rodolfa, Rapaport, & Le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984): 402-404.
- Schön, D. A.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s Books, 1983.
- Schön, D. A.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Toward a New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Profession*. New York: Basics Books, 1987.
- Shapiro, S. B., & Reiff, J. "A Framework for Reflective Inquiry on Practice: Beyond Intuition and Experience." *Psychological Reports* 73 (1993): 1379-1394.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5.
- Tomm, K. "Interventive Interviewing: Part II. Reflective Questioning as a Means to Enable Self-healing." *Family Process* 26, no. 2 (1987): 107-167.
- Tryon, Shick, G., & Kene, A. S. "Relationship of Working Alliance to Mutual and Unilateral Ter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93): 33-36.
- Warner, R. E. "Comparison of Client and Counselor Satisfaction with Treatment

- Dur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0, no. 3 (1996): 73-88.
- Westen, D., & Morrison, K. “A Multi-dimensional Meta-analysis of Treatment for Depression, Panic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Empirically Supported Therap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no. 6 (2001): 875-899.



【 Abstract 】

Reflection of Christian Counselors:  
Focusing on Client's Premature Termination

**Mi Kyung Kim**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how Christian counselors have become changed while responding to and coping with a situation of premature termination promoting self-reflection, focusing on self-reflection that has been steadily discussed in development processes for counselor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 was advanced with 10 advanced counselors who have experienced the situation of premature termination of their clients within recent 6 months. The analysis of data followed the basic procedures of Creswell(2005)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w have Christian counselors gotten changed in response to and coping with the premature termination according to their careers? Novice counselors recognized the premature termination as failed counseling immediately. However, their emotional responses get to research main causes of premature termination of their clients according to building of their careers and become active in cognitive reactions and measures for recognizing life patterns of their clients. Accordingly, reflection of themselves and their counseling process is realized.

Second, how did Christian counselor's self-reflection get changed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premature termination? Advanced counselors took reflection-in-action while processing their given tasks smoothly. Accordingly, it shows, the higher the development level of expertise of counselors, the more self-reflection they take in the course of counseling.

Third, what kinds of efforts and preparation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premature termination? To have thorough knowledge of basics of counseling is the key to prevent the premature termination. It makes working alliance firm on the basis of satisfactory structure and reliable rapport.

**Key words:** self-reflection, development of expertise, qualitative analysis, reflection-in-action, premature termination